

2023. 12. 1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매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133-2260
정류소관리팀장	김슬기	2133-2295
담 당 자	민건희	2133-2299
홍보담당관	김규리	2133-6405
매체홍보팀장	윤선재	2133-6425
홍보전략팀장	유병천	2133-6450
담 당 자	신유미	2133-6410

### 온기와 매력 품은 서울시 버스정류소·온열의자 사각지대까지 전역 확대

- 서울시, '24년까지 정류소 내 온열의자 적극 확대 추진...겨울철에도 온기 가득 시민과 동행
- '민생중심 교통복지 올해만 1,241개 설치, 예산 적극지원해 소외지역까지 서울 전역 확대 성과
- 겨울철 맞춤 온기 메시지 전달하고 Fun 디자인도 적용...'매력 특별시' 공간으로 변모
- 따뜻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동행·민생 중심 교통정책 추진 집중

- 겨울철 한파는 잠깐의 기다림도 길게 느껴지는 계절이지만, 서울시의 버스 정류소 풍경은 더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서울시 대표 교통복지인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서울 전역에 대폭 확대돼 시민 누구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시민에게 보내는 응원과 온기가 가득한 메시지도 담아 시민을 위한 새로운 휴식처가 될 예정이다.
-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내 온열의자 설치를 대폭 확대에 나선다. 올해 설치율을 82% 수준으로 높인데 이어, 내년에는 중앙차로 정류소 까지 설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겨울철에도 든든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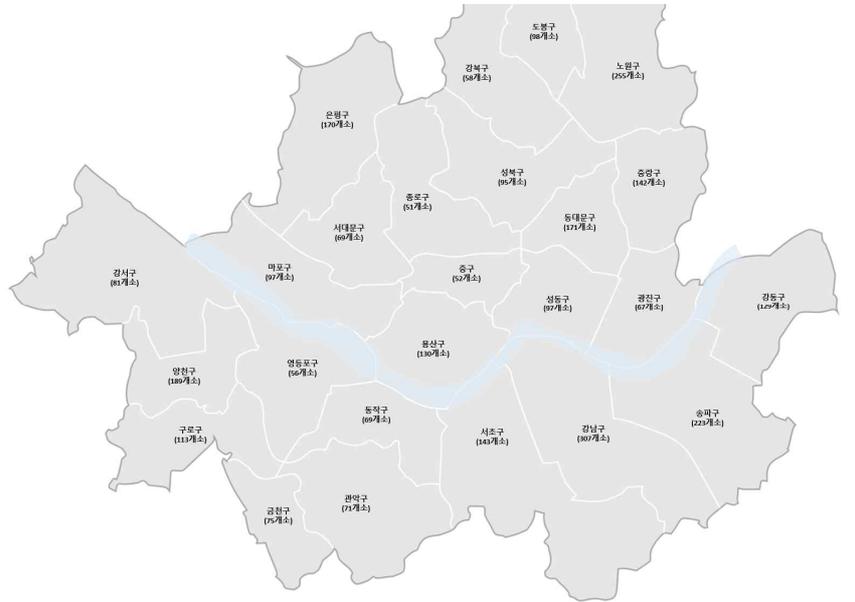
〈서울시 대표 교통복지 '정류소 온열의자 확대·시 예산 적극 지원으로 소외 지역까지 설치 성과〉

- 서울시가 겨울철 대표 교통복지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는 아랫목 위에서 따뜻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시민 생활에 편의를 더하며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 중심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1,241개를 추가 설치하여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정류소 81.35%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 온열의자 설치사업은 2023년 버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시민 92% (총 참여 약 6,000명)가 만족도를 표시할 정도로 적극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23년 시내버스 정류소 4,220개 승차대 중 3,433개에 설치 완료와 함께 24년에는 중앙차로 승차대까지 설치 범위를 대폭 넓힐 경우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열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역시, 금년부터 내년까지 온열의자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 전역에 걸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2023년에는 총 21개 정류장(천호대로 12개, 청량리 버스환승센터 5개, 여의도 환승센터 4개)에 총 107개의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하였다.
  - 2024년에는 이용 승객수가 많은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등 512개 승차대 전체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대중교통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3년 시내버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안)>

중앙차로			가로변			합 계		
정류소	승 차 대	온열의자	정류소	승 차 대	온열의자	정류소	승 차 대	온열의자
379	937	425 (45.36%)	6,216	3,283	<b>3,008</b> <b>(91.62%)</b>	6,595	4,220	<b>3,433</b> <b>(81.4%)</b>

\* 온열의자 설치율('22) : 중앙차로 318개 (33.94%), 가로변 1,874개(57.08%)



- 이러한 서울 전역에 교통복지가 확대된 배경에는 소외 지역까지 시설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 특히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경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금년에만 약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파가 시작되는 12월까지 온열의자가 설치·가동되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에는 자치구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 모두가 온열의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사각지대 온열의자 설치 사례

- **종로구 구기동·평창동 등** 지역적으로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없이 주민들이 버스만을 이용하는 교통취약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였다.
- **구로구 천왕동**의 경우 시민들의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승차대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버스 이용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승차대와 온열의자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관악구 대학동** 등 학원 밀집지역들에도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고단한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이도록 노력하였다.

## 〈Fun 디자인 입고 마음까지 위로받는 새로운 버스정류소·온기 가득 메시지 만나보세요〉

- 서울시는 신규 설치되는 중앙차로 정류소 온열의자 상판부에 시민들의 하루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감성적인 문구와 디자인을 적용하여 연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들었을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위로할 계획이다.
-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 환승센터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시장 주변인 청량리 환승센터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거주 지역인 천호대로 정류소에는 가족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등 각 설치 장소별 이용이 잦은 시민들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감의 문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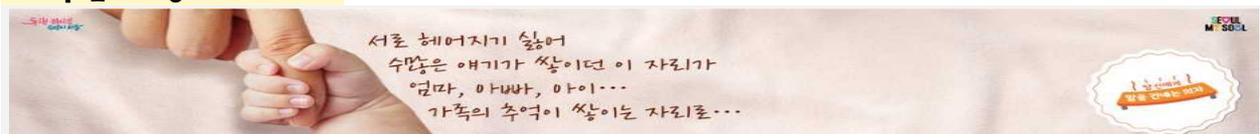
###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 응원의 메시지



### 가족간 사랑의 메시지



□ 신규 설치되는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는 버스정류소를 시민들이 잠시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고단한 몸을 녹이며 시민들의 마음까지 FUN하고 따뜻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이다.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신규설치 온열의자 ('23)107개소 → ('24)512개소

□ 또한, 내년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Fun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시민에게 일상 속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온열기능뿐만 아니라, 계절과 지역에 맞는 공간 연출을 추진함으로써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서울시만의 '매력특별시' 시정 철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에 설치된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의 경우 통일적이고 단정한 도시미관을 위해 서울시 표준형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조화로운 거리 이미지 창출 및 도시 품격 제고에 기여하였다.

○ 내년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양화·신촌로, 송파대로 구간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시민들께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드릴 수 있는 창의적인 Fun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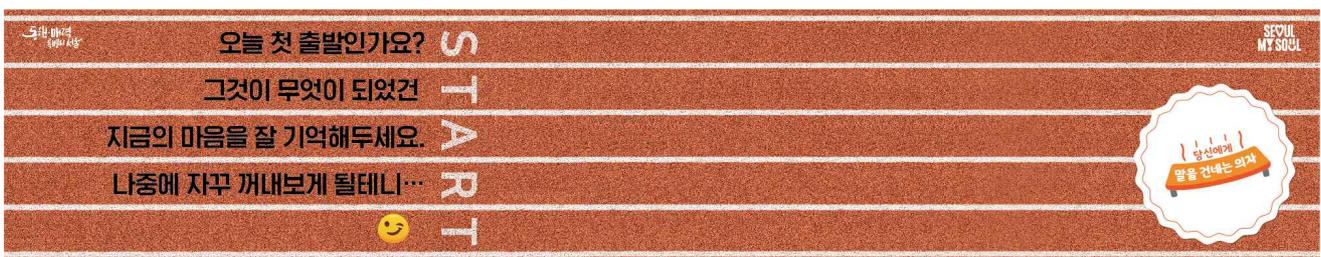
○ 예를 들면 송파대로의 경우, 롯데월드가 위치한 구간에는 롤리코스터의 모습을 한 버스 정류장, 잠실종합운동장이 위치한 버스정류장의 경우 야구 경기장 모습을 한 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버스정류소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 시설인 버스정류소가 생활 속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편안한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설치를 이어나가겠다”며 “내년부터는 시민 생활을 잇는 대표 교통시설이 세계적인 매력 특별시 서울에 걸맞는 다양한 공간 연출로 새롭게 거듭나는 만큼, Fun 디자인 적용으로 시민과 동행·소통하는 버스 정류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1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디자인(안)



## 붙임 2 온열의자 설치 사진



온열의자 시정홍보(안)



온열의자 설치 사진

